



높임말을 왜 써야 하나?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세요.”

“아버지, 시장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여쭙고 보고 싶은 게 있어요.”

- ①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입니까?
- ② 높임말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③ 여러분은 높임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어에서는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웃어른께 항상 높임말을 사용한다. 높임말은 아랫사람이 웃어른께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그래서 부모님과 웃어른들께는 높임말을 쓰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을 보면 자신의 부모님께 반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

물론 높임말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언어도 많이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모님과 격 없이 지내기도 한다. 또 높임말이 발달한 일본에서도 나이 차이가 많아도 일단 친해지면 높임말을 쓰지 않고 특히 부모님에게는 높임말을 별로 쓰지 않는다. 이러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모두 반말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혹은 부모님과 가까워지려면 높임말보다는 반말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는 말이 있다. 평소의 말과 행동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것도 그러한 형식의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높임말을 쓴다는 것은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마음’ 이라는 내용을 ‘높임말’ 이라는 형식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높임말은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고 하지 않는가. 높임말 사용을 가볍게 생각하고 반말을 사용하게 되면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절 바른 인격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높임

말은 공경하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어휘

알맞다	ふさわしい、適切だ
오냐	(目下の人の質問や依頼に対して承諾や同意を表す) うん、よし
자네	(目下の人に対して)君
편찮다	「아프다」의 높임말. 「편하지 아니하다」의 縮約形
시장하다	「배 고프다」의 높임말
여쭙다	「묻다」의 낮춤말
웃어른 [우더른]	目上 ⇄ 아랫사람 (目下)
공경하다 < 恭敬 ->	慎み敬う
자연스럽다	自然だ
때에 따라서	場合によって
격 없이	砕けた態度で
지배하다	支配する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三つ子の魂百まで」にあたることわざ
예절 < 禮節 > (이)바르다	礼儀正しい
인격	人格
자연환경	自然環境
시집 (을) 보내다	嫁入りさせる
장가 (를) 가다	男が結婚する